

26학년도 수능 수학 사고 흐름

Find the next number of the sequence

1, 3, 5, 7, ?

Correct solution

217341

because when

$$f(x) = \frac{18111}{2}x^4 - 90555x^3 + \frac{633885}{2}x^2 - 452773x + 217341$$

$f(1)=1$

$f(2)=3$ such solution

$f(3)=5$ wow very log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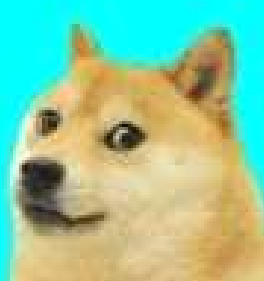
$f(4)=7$

$f(5)=217341$

such function

many maths

wow



수능 보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26수능 수학 46문제의 손풀이를 올릴 건데요, 그것만으로는 제가 왜 저런 식으로 풀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시험지 운영이나 실수 극복에도 도움이 될까 하여) 텍스트로 제가 문제 풀면서 한 생각을 짝 적어봤습니다.

본인의 풀이 / 저의 손풀이 / 이 문서를 함께 보시면서,
저의 손풀이와 사고 과정이 괜찮아 보이면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엄청 화려한 풀이는 솔직히 없습니다. 오히려 발상을 잘못 하기도 하고, 실수도 잦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끝내 정답에 도달하는 과정을 적어봤으니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어체가 좀 오글거릴 수 있고, 욕설도 좀 있습니다.
가독성과 몰입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46문제 중 일부 문제는 사고 과정을 적지 않았습니다.
너무 쉽거나, 제가 막힘없이 풀었는데 그게 정석 풀이 같아서 첨언할 게 없다거나 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기하 30번까지 사고 과정 적고나서 다음 페이지에 이 시험지가 어땠는지에 대한 제 느낌을 적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공통

1~4 생략

5. 미분계수 정의 쓸 거냐 곱미분해서 숫자 집어쳐넣을 거냐 둘 중 하나다.
미분계수 정의 쓸지 판단하기 위해 $f(1)=0$ 인지 확인한다.

$f(1) \neq 0$ 이다. 그럼 곱미분이다.

앞에 거 1 대입하면 3, 뒤에 거 1 대입하면 -1

앞에 거 미분해서 1 대입하면 1, 뒤에 거 미분해서 1 대입하면 3

$\frac{3}{1} - \frac{1}{3}$ 해서 크로스해서 곱하고 더한다. $9-1=8$

6~9 생략

10. $A(t, a^t - 2)$ 부터 깔고 생각한다. y 축에 평행한 직선이면 $x=t$ 이다.

$B(t, 0)$, $C(t, -2)$ 그냥 나오네. 뭐 하라고?

$\overline{AB} = \overline{BC}$ 면 $a^t = 4$ 네. 뭐 하라고?

삼각형 AOC 넓이 8이면 뭐야. 9평 12번이랑 똑같네. $t=4$

11. 또 나왔네. 미분인지 적분인지 판단한다.

ㄱ 보니까 일단 적분이다. 나머지 선지에 가속도 얘기 없으니 진짜 적분이다.

부정적분 먼저 해놓고 간다. ㄱ 맞네.

근데 왜 $k=1$, $k=3$, $k=5$ 지랄함? 어지간히도 널 게 없었구나.

$v(t)$ 에 $k=3$ 대입한다. 인수분해 될 것 같이 생겨놓고 안 된다. 어찌라고?

운동 방향 바뀌는 시각 정확한 값을 물은 게 아니다. 근데 보니까 한 번은 절대 아니네. 이차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ㄴ 틀렸다.

$v(t)$ 에 $k=5$ 대입한다. 인수분해 된다. $v(t)=(t-1)(t-4)$

$t=0$ 에서 $t=2$ 까지 움직이는 동안 운동 방향 한 번 바꾼다. 그때 $t=1$

$|x(1)-x(0)|+|x(2)-x(1)|$ 이다. 귀찮지만 대입해보니 ㄷ 맞음.

12. 생략

13. 갑자기 안 읽힌다.. 뭐 구하라고? (막줄 확인) 넓이 구하라고?
 아까 3점짜리에서 물어봐놓고 왜 또 그러는데. 해야지 뭐 씨발.
 근데 왜 그림 안 주는데. 일단 다 읽고 온다. 곱미분 왜 또 시킴?
 아 직선 3개가 이루는 넓이면 삼각형이겠네. 그럼 곡선 그럴 필요 없지.
 (사실 애초에 $g(x)$ 가 5차함수라서 그리라고 시키는 거 불법임)
 $g'(1)=-4$ 구하고 l, m 방정식 찾는다. l, m 교점 x 좌표가 7이다.
 대입해보니 둘 다 y 좌표 -18 로 같게 잘 나온다. 다행.
 넓이는 $\frac{1}{2} \times 6 \times 12 = 36$ 아니 씨발 왜? 일단 넘어간다.
 (다시 옴)내가 뭐 잘못했는데. $(7, -18)$ 맞는데?
 아 씨발. $(1, -6), (1, 6), (7, -18)$ 삼각형 넓이 구해놓고 지랄했네.

14. 생략

15. 뭔데 이거. 어우 하기 싫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h(x)$ 가 극값을 가지고 어찌고를 물으려면 $h(x)$ 가 미분가능해야 될 거다. 그러려면 고딩수학에서 피적분함수가 연속함수라는 보장이 있어야 된다. 아 $f(x), g(x)$ 각각 연속이니까 맞네.

$h'(x)$ 가 $f(x)$ 랑 $g(x)$ 랑 둘이 어찌구 해서 만든 건데 구간 너무 많이 쪼개지는 거 아님? 생각해보니까 4개뿐이네. 그냥 해야지 씨발.

$$h'(x) = g(x) - f(x) = \begin{cases} x^2 + ax + a & (x < -1) \\ x^2 & (-1 < x < 0) \\ -x^2 + x & (0 < x < 1) \\ ax - a - x^2 + x & (x > 1) \end{cases}$$

일단 $(-1, 1)$ 구간에서 $h'(x)$ 식은 다 정해졌다. 이걸 그려놓자.

극값 한 개밖에 없다. 그러면 $y = h'(x)$ 그래프가 x 축을 한 번만 뚫겠구나. **1)**

a 의 최댓값을 구해야 하는데.. 근데 a 가 뭔데. 아 그냥 양수.

어어? $a = 4$ 아님? $x < -1$ 에서 $x^2 + 4x + 4 \geq 0$ 이니까 이거 맞는 것 같은데?

$x > 1$ 에서 $h'(x)$ 그래프 그렸음. 아 맞네. 달콤하다. $k = 4$ 다. **2)**

그래서 답이 뭐고. $h(3)$ 도 구하라고? 아이 씨발 귀찮아.

근데 15번 치고는 별로 안 어렵네.

1) 다시 보니 완전 엄밀하진 않은 듯함.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x 가 여러 개인데 극값이 하나만 있을 수도 있음. 생각해보니 그것도 또 이상하네.

2) 더 엄밀하려면 $a > 4$ 에서 극값이 2개 이상 나와서 안 되는 거 확인하긴 했어야 함.

18. 너 누군데 여기 있음? 사인법칙 코사인법칙 14번에 냈잖아.
일단 그려본다. 아 그럴 필요도 없었네. 존나 자존심 상한다.
19. 어후 부등식. 9평 21번 같은 거 또 나옴? 아 아니네 씨발.
너는 어떻게 풀면 될지 딱 보이니까 다른 문제 풀다 막혔을 때 돌아와서
환기하는 용도로 킵해둔다.
20. 오 수능 3일 전에 오르비에 20번 수열 귀납 빈칸 예측글 썼는데 맞혔네.
(의미 없음)
(두 번째 조건 읽고)뭔데 저건. a_2 만 구해보자. $a_2 = 10$
(빈칸 박스 읽는 중) (가)는 $n+1$ 넣은 거에서 n 넣은 거 빼라는 거네.
(나)는 구해봤지요.
근데 뭐 구하는 과정이랬음? (올라가서 확인) 못생겼다.
(솔직히 (다)에서 한 번 절었음. 다행히도 정답이 자연수가 안 나와서 고
쳤음.)

21. 뭔데 이거. 일단 바로 얻을 수 있는 건

$f(t)=0, f(0)=f(2)=0, g(-1)>0, g(1)<0$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시발.

$f(x)=ax(x-2)(x-k)(a>0)$ 으로 두면 k 값 범위 가지고 케이스 분류 존나 해야 하는 거 아님? 근데 또 t 가 0인지 2인지 k 인지는 어떻게 아는데.

시발 너는 마지막이다.

(나머지 29문제 다 풀고 돌아옴) (나)를 존나게 해석해야 한다.

$A:=\left\{g(-1), -\frac{7}{2}g(1)\right\}$ 인데 A 의 원소는 다 자연수다.

$f(2)=0$ 이 있으니까

① 2보다 작은 자연수

② 그냥 2

③ 2보다 큰 자연수

로 쪼개가지고 각각이 A 의 원소가 될 수 있을지 확인한다.

$1 \in A$ 인가? $g(1)>0$ 인가? 아니네. 그럼 $1 \notin A$ 다.

$2 \in A$ 인가? $g(x)$ 의 $x=2$ 에서의 우미분계수가 음수인가? 내가 어케 알아.

그럼 2보다 큰 자연수 중 A 의 원소의 개수는 1 또는 2다.

케이스 분류 존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³⁾ 잘 짚어야 한다. 제발.

$k>2$ 일단 시도한다. $f(x)$ 그래프 그린다.

$g(-1)>0, g(1)<0$ 이라면 $t=2$ 또는 $t=k$ 둘 중 하나네.

근데 $t=k$ 면 A 가 공집합이 된다. $t=2$ 되나? 말은 된다. $3<k \leq 4$ 면 진짜 된다. 그러면 $A=\{2,3\}$ 이다. 이제 씨발 둘 중에 뭐가 2인지 또 케이스 쪼개가지고 해야 된다. 아니 씨발 이래놓고 아니면 평가원 어쩔 건데.

$\frac{g(-1)}{-\frac{7}{2}g(1)}$ 의 값이 $\frac{3}{2}$ 또는 $\frac{2}{3}$ 이다. $\frac{3}{2}$ 에 건다. $k=\frac{11}{3}$ 나왔다. $3<k \leq 4$ 맞

다 오 씨발. 진짜 순서 꼬았네 이런 미친 평가원. $g(-1)=3$ 에서 $a=\frac{3}{14}$ 얻

었다. $a=\frac{3}{14}$ 이면 $-\frac{7}{2}g(1)=2$ 가 되는지 확인해봤는데 맞다 어후 씨발.

그래도 운은 좋았네.

문제 조건 다 만족시키는 거 맞지? 씨발 맞겠지.

이대로 답 내는 게 최선이다.

3) 나중에 다시 풀어보니 케이스 분류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22. 일단 지수로그 그래프 나온 건 알겠다. $\left(\frac{77}{8}, \frac{133}{8}\right)$ 은 뭘 근본 없는 숫자고.

적어도 아직 안 푼 21번보단 쉽겠지. 좌표 깔아서 먼저 도형 관련 식 뽑아내고, 남은 식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식에 넣어서 얻은 다음에 연립방정식 푼다. 그림 안 그린다. 4)

$A(a, b)$, $A'(b, a)$ 인데 A' 이 직선 OB 위의 점이면 $B(bk, ak)$ 로 놓고 가야지.

$$a + bk = \frac{77}{4}, \quad ak + b = \frac{133}{4}$$

그럼 둘이 더해서 $(a+b)(1+k) = \frac{105}{2}$ 로 일단 쓰자.

$$b = \log_{16}(8a+2), \quad ak = 4^{bk-1} - \frac{1}{2}$$

둘 중 하나를 바꿔야 되는데, 앞에 식을 지수로 바꿀까? 뭔가 좇같은 것 같은데. 앞에 거는 그대로 놔두자. 좌변이 그냥 b 면 예쁘니까.

뒤에 거 변형하니까 $bk = \log_4(4ak+2)$

뒤편. $k=2$ 면 아다리 딱딱 맞을 것 같은데? 오 시발 맞는 듯. 드가자

$$\text{연립방정식 } \begin{cases} a+2b = \frac{77}{8} \\ 2a+b = \frac{133}{8} \end{cases} \quad \text{풀어서 } a \times b = \frac{441}{16} \text{ 나옴.}$$

$p+q=457$ 이 답이라고? 토 나온다.

4) 기본적으로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안 좋아합니다. 그림을 정확히 그리려면 신경 써야 할 게 많고, 신경 써서 그림을 그려봤자 결국 답을 내려면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림이 계산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풀이 공간만 잡아먹는 느낌입니다.

이 문제에서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면 점근선, 절편 위치, 세 점 A , A' , B 와 $y=x$ 의 위치 관계, A' 과 B 중에서 누가 원점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지 등을 신경 써야 합니다. 저는 그거 신경 쓸 시간에 좌표 깔고 계산 밀겠습니다.

확통

23~26 생략

27. 사고 과정은 아니고 그냥 먼지팁

그냥 확률분포표 완성해서 착착착 풀면 된다.

확통 과목 특성상 분수 가지고 사칙연산 할 일이 많은데, **확률분포표 작성할 때 분모를 통일해주는 것이 좋다.** 약분을 미리 해놓더라도 나중에 계산하다 보면 통분해야 하는데 그럴 거면 애초에 약분 안 하는 게 맞지.

$E(X)$ 계산하고 나서 $E(X^2)$ 계산할 때 **분자에다가 각각의 $X=x$ 를 한 번 더 곱해준다**는 느낌으로 가면 수월하게 계산할 수 있다(손풀이 빨간색 화살표 참고).

28. 사고 과정은 아니고 그냥 먼지팁

조건부확률은 일단 $\frac{\text{확률}}{\text{확률}}$ 이다. 분자 분모 각각의 식을 정확히 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frac{\text{확률}}{\text{확률}}$ **약분 실수를 안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려면 27번과 마찬가지로 **미리 약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손풀이에서 분모 구할 때 $\frac{4}{6}$ 이나 $\frac{2}{6}$ 을 굳이 약분하지 않고 분모 6을 유지하는 것)

이렇게 되면 마무리 계산($\frac{\text{확률}}{\text{확률}}$ 약분)할 때 분자, 분모의 **공통인수 $\frac{4}{6^4}$ 를 쉽게 쳐내고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29. 생략

30. 25번 주머니에 공, 28번 상자에 공, 30번 또 주머니에 공 존나 성의 없네.
 (가) 가지고 (i) 4개 / (ii) 6개로 케이스 분류하는 건 알겠음.
 (나)가 문젠데, 당장 (풀이를 줄일)방법이 안 떠오른다.
 (생각 조금 하다가 결국 중복조합으로 풀긴 했음)

방법이 안 떠올 때 미세먼지팁

23번부터 29번까지 한 번 빠르게 훑어서

1. 중복순열
2. 같은 것이 있는 순열
3. 원순열
4. 중복조합

중에서 안 쓴 걸 쓰는 방향으로 간다(단원 밸런스 고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랑 중복조합 안 썼다.

(사실 경우의 수 4점은 중복조합이 국물이긴 함)

만약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방향 설정했을 때 할 만한 시행착오⁵⁾

먼저 (i) 케이스에서 2 주머니 2개, 1 주머니 4개, 0 주머니 4개로 순열
 조절 건데, 2 주머니 옆에는 0 주머니만 가능.

2 주머니가 끝에 놓일 때랑 센터에 놓일 때 다 고려해야 되는데? 게다가 2
 주머니가 2갠데? 이걸 (ii)도 또 하라고? **잠깐 멈춤.**

여사건인가? (가)의 (i)만 만족시키는 경우는 $\frac{10!}{4!4!2!}$ 이다. 숫자가 존나 커

보이는데? 마킹 가능한 숫자 나오려면 $\frac{10!}{4!4!2!}$ 이랑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숫자만큼을 덜어내야 하는데, 그럴 거면 여사건 할 이유가 없다. **여사건은
 아니다.** 케이스 분류 엄청 꼼꼼히 해서 답 내거나 중복조합으로 틀거나 둘
 중 하나 골라야 한다.

5) 저는 이 시행착오를 안 겪었던 한데, 겪었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했을지 적어봤습니다.

미적분

23~24 생략

25. 그냥 $a_n = 5n$ 박고 압산함. $\sqrt{9n^2 - 5} + 2n < 5n$ 맞는지 확인도 안 했음.

생긴 게 딱 봐도 조임 정리 문제인데 $\frac{a_n}{n} \rightarrow 5$ 되게 냈겠지 하고 그냥 풀음.

26~27 생략

28. 역함수 적분할 생각을 못해서 시행착오 많이 겪었다가 뒤늦게 역함수 적분으로 풀. 그래도 역함수 적분 발상을 하기만 하면(미적 선택자들이 나보다 잘 할 듯) 풀리긴 해서(계산은 개좆같긴 하다만) 이전 평가원 28번들에 비해 쉬운 편이긴 한 듯.

29. 생략

30. 어쩔 이렇게까지 못생길 수가 있지? 진짜 존나 하기 싫다..

또 역함수 뒤흔기네. $f^{-1}(x)$ 를 미분해야 될 것 같으니까 표기 안 헛갈리게 $h(x)$ 로 이름부터 바꿔놓고 시작하자.

박스 안 조건이 생각만큼 좋잖진 않네. (가)는 (부호 고려해서) 양변 $\sqrt{\quad}$ 취하면 되고, (나)는 강 절댓값 벗기면 된다. 알겠다.

$h(x)$ 가지고 $f(x)$ 로 또 바꿔서 $g(m)$ 정의하기는 존나 힘들 것 같다.

$(0, 1)$ 지나고 기울기 $\frac{1}{m}$ 인 직선이 $y=h(x)$ 와 만나는 점 개수로 생각하자.

이거는 계산만으로 못할 것 같다. 그래프다. 근데 하기 싫다. 근데 뭐 해야 됴?
 $g(m)$ 불연속인 m 이 두 개구나. 불연속은 아마 접할 때로 봐야겠지.

그럼 (평균변화율) = (미분계수)에서 $\frac{h(x)-1}{x} = h'(x)$ 실근 찾아야 되는구나.

그때의 $h'(x)$ 의 값이 하나는 $\frac{1}{a}$ 이고 다른 하나는 $\frac{1}{b}$ 이겠구나.

a 와 b 의 대소 관계랑 $\frac{1}{a}$ 과 $\frac{1}{b}$ 대소 관계 가지고 알쏭달쏭 와리가리 변별도 하는 듯. 치졸하구나.

(다음 페이지) 그래프 그리자. 문제 꼬라지 보니까 그림 좀 예쁘게 그려야 할 듯.
 $x=1$ 에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확인 \rightarrow 어라 둘 다 1이네. 오 시발 (1, 2)
에서 접하는데(기울기 $\frac{1}{b}=1$)? 그리고 제3사분면에서 또 접선 하나 생기겠
구만(기울기 $\frac{1}{a}>1$). 아니 잠만 기울기 1일 때 연속인데? 뭐고. 아니 씨발
하나가 y 축이랑 평행할 때 불연속이네. m 이 무한대일 때네. $a=0$ 이네.
 $b=1$ 인데 $\frac{\ln b}{b}$ 뒤흔기 묻는 거 이상하기도 함. 아무튼 씨발. 일단 답은 나
오겠다. $\lim_{m \rightarrow a^+} g(m)$ 은 기울기 존나 클 때니까 2다. 아니다 3이다 제3사분면
존나 멀리서 한 번 더 만난다. 아오 씨발. $h(x)-1 = xh'(x)$ 풀어서 어쨌든
 $\frac{\ln b}{b} = -2$ 도 찾고 답 11 구함. 이거 씨발 다 풀어놓고도 10 같은 거 써서 틀
린 사람 꽤 있겠는데?

기하

27. 등변사다리꼴. 높이 모름. 높이 k 로 두지 뭐. 등변사다리꼴 넓이 $4k$ 근데 4배라고? 그럼 삼각형 넓이가 k

그러면 삼각형 밑변을 선분 AB로 잡았을 때 높이가 $\frac{2}{5}k$

그러면 이면각 $\cos\theta = \frac{2}{5}$ 네. 근데 k 는 어떻게 구함?

당장 잘 안 보이는데.. $\sin\theta = \frac{\sqrt{21}}{5}$ 인 건 알겠음.

(선지 확인) 아이 씨 선지 배치 저러면 당연히 답이 $\sqrt{21}$ 이지. 안 푼다.

28. 사면체 안에 구 집어넣어놨네 개역접네.

몇 년 전에 내가 공백 문제 만들던 거랑 스타일 존나 비슷한데?

(삼각형 ABH 변 길이 한 번 잘못 봄) 아니 씨발 구 반지름 길이 어떻게 구하란 거임? 중심 위치도 못 찍겠구만.

이거 진짜 맞으면 평가원 개육쳐먹는다. 내가 잘못 본 거겠지.

(발문 다시 확인) 아니 정삼각형이네. 존나 쉬운 거였네. 그래서 뭐 구하라고?

이면각 구해야 되는데.. 아니 평면의 방정식(교과 외) 깔기 존나 쉬운데?

교과 외 저격 별로 관심 없나?

22학년도 때는 교과 외 못 쓰게 하려고 지랄을 하더만.

29. 이차곡선 개좆밥이니까 드가자.

뭐 하라는 거고. 이런 문제(삼각형 둘레랑 넓이 주고 체육 시키는 거) 비슷한 거 만들려다가 계산 더러워서 말았는데. 아 존나 하기 싫다.

(호기롭게 $\overline{AH} = d$ 로 미지수 잡고 체육하다가 개삼질함)

뭔데 이거. 강 $A(a, b)$ 로 잡아보자. $F(p, 0)$, $H(-p, b)$ 인데 뭐 어찌라고?

둘레 길이는 $a+p$ 에다가 장축 길이 더한 건데..

장축 길이가 얼마데? 이거 또 미지수 잡아야 됴?

아 잠만. 반대쪽 꼭짓점 $F'(? , 0)$ 생각해보자.

A , H 의 x 좌표 평균이랑 F , F' x 좌표 평균이 같아야 되는데,

그럼 $F'(a-2p, 0)$ 이네. 그럼 장축 길이 $a-3p$ 네. (장축 길이 $3p-a$ 인데 또 병신새끼 삼질 1분 했음)

아씨발 $p=9$ 이렇게 쉬운 걸 못 풀고 개지랄했네.

넓이 조건에서 $(a+9)\sqrt{a}=10$ 얻음. a 는 당연히 제곱수지 씨발.

$a=1$ 대입해봄. 맞네. $b=6$ 이네. 답 360이네.

30. 벡터 뭐 별거 아니지.

어라 왜 안 보임? 그냥 좌표 깔고 체육 드가자.

$A(-5\sqrt{2}, 0)$, $B(5\sqrt{2}, 0)$ 이따구로 잡으면 P 좌표 잡기도 좇같음.

$P(0, 0)$, $A(0, 2)$, $B(14, 0)$, $Q(x, y)$ 이렇게 잡는 게 나음.

묻는 값도 $2|y|$ 니까 간단하고. 체육 드가자.

체육 존나 뺏세네.

나중 풀이, 찐막 풀이(이게 정석 풀이로 보임) 추가

어려운 발상도 아닌데 정석 풀이 바로 못 떠올린 거 아쉽네

결론 주절주절

체감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공통도 어렵고 선택 세 과목도 다 꽤 어려웠습니다. 시간을 충충충분히 주면 못 풀 문제는 없겠지만 100분 안에 30문제를 풀어야 하는 시험인 걸 놓고 봤을 때 어려운 시험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풀었는데도 실수가 정말 많이 나오네요. 6평 9평 풀 때랑 거의 똑같은 환경에서 풀었는데, 역시 수능은 그 무게감이 다른 시험 같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14번은 좀 시키는 게 많긴 했는데 저는 막힘 없이 풀었습니다.

15번도 14번과 비슷합니다. 어려운 발상을 요구하지 않고, 좀 귀찮을 뿐인 듯 합니다. 최근 평가원 15번에 비해 쉽다고 느꼈습니다.

21번은 k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사실 $k > 2$ 인 걸 논리적으로 얻을 수 있지만 바로 떠올리기 쉽지 않음), 각각의 k 마다 t 는 또 무엇으로 정할 것인지, $g(-1)$ 이랑 $-\frac{7}{2}g(1)$ 중에서 무엇이 2이고 무엇이 3인지 등 고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 와중에 계산량도 꽤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어려웠는데, 제 생각에 46문제 중 21번이 가장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22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260622보다 쉬웠고, 260922보다는 어려웠습니다(오르비에 투표 올려봤는데 오르비 여론은 260622 < 261122인 것 같긴 하네요). 좌표 깔고 툭툭툭 풀다보니 $k=2$ 를 발견하고, 연립방정식 풀어서 생각보다 금방 답이 나왔습니다. 확대축소(처음에는 뭔 애긴지 몰랐습니다) 이슈가 있던데, 그런 풀이로 풀든 좌표로 풀든 식 조작해서 2배를 발견해야지만 답을 낼 수 있게 냈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거라도 안 하면 솔직히 변별력 있는 문제를 만드는 게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22번 자리에 다른 단원 문제를 내는 게 낫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25학년도 수열 개노가다보다는 훨씬 낫긴 합니다만). 뭐 이걸 내년 6평 나올 때까지는 봐야 하겠습니다.

확통 28번은 최근 조건부확률 문제들 중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분자 분모에 각각 어떤 경우의 확률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계산도 꽤 있었던 것 같고요.

확통 30번은 풀이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너무 많이 돌아가는 듯합니다.
방향을 잘 알고 있으면 계산은 ${}_5C_2 \times {}_3H_4 + {}_4C_1 \times {}_3H_6 = 262$ 가 끝이라서 괜찮은데,
그걸 떠올리는 게 어려울 수 있겠다 싶고, 경우의 수 특성상 주관식 풀 때 내
답에 확신이 없다는 것도 정답률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적분 28번은 최근 28번에 비해 쉽긴 합니다. 역함수 적분 발상을 떠올리느냐
아니냐가 관건인 듯합니다.

미적분 30번은 풀기 싫게 생긴 것과 여러 시행착오들, $a=0$ 의 발견, 마무리 계
산 실수 등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근데 제가 미적을 좀
못하긴 해서 저랑 다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와 감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138문제⁶⁾ 중에서 가장 추하고 치졸한 문제라
고 느꼈습니다. 수능에 이런 걸 내버리면 뭐.. 어찌됐나 싶네요. 평소에 사설
풀 때 더러워도 견디라는 것 같네요.

기하 28번은 최근 공간도형 문제들 중 쉬운 편이었습니다. 작년 수능 공간도형
도 쉬웠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유일하게 3D를 다루는 단원이다보니 쉬워도 풀
아서 못 푸는 게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기하 29번과 30번은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⁷⁾, 그게 정말 잘
안 보이게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기하 여론에 평가원이 공감을 못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6) 올해 평가원 진 문항. 2등은 261122

7) 이게 약간 기하 특징이긴 합니다.

선택과목 주요 문항 12개에 대한 제 체감 난이도(최초 풀이 시 체감 난이도)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낀 대로 적었습니다.

27번 : 확=기<미

28번 : 기<확<미

29번 : 확<미<기

30번 : 확<기<미

확통 : 27<29<30<28

미적분 : 27<29<28<30

기하 : 27<28<29<30

1. 미적 30
2. 기하 30
3. 미적 28
4. 기하 29
5. 확통 28
6. 미적 29
7. 확통 30
8. 기하 28=미적 27
9. 확통 29
10. 확통 27=기하 27

니 기준으로 작수보다 어려웠나요?

확통 : 네네네

기하 : 네네

미적분 : 조금 네

제 선택과목 실력이 고르지 않고, 실수 여부도 반영돼 있어서 실제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출은 쌓여가고, 컨텐츠는 넘쳐나고, 범위는 줄어들다보니 해가 갈수록 기괴한 시험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과목 오르비 여론이나 유튜브에 뜨는 총평 같은 것도 살펴보면, 정시로 대학 가기 정말 어렵다는 걸 다시금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